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채권전략 안예하 yhahn@kiwoom.com



지난주 동향

지난주 채권 시장은 미국과 한국의 방향성이 엇갈린 가운데, 국내 시장은 강세, 미국채 시장은 약세 마감했다. 국내시장은 미국 관세율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약세 압력을 받기도 했으나, 국내 통화정책 영향에 강세 마감했다. 반면 미국채 시장은 상호관세율 발표, 구리 수입품 관세 부과 등이 기대인플레이를 자극해 약세 마감했다. 국고 3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2.6bp 하락한 2.447%, 국고 10년물 금리는 0.4bp 하락한 2.830%에 거래 마감했다. 국고 3-10년 스프레드는 38.3bp로 전주보다 소폭 확대되었다.

미국채 금리는 한국, 일본을 시작으로 주요국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기대인플레이가 높아진 영향에 상승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25% 관세율을 부과했고, 브라질, 캐나다, EU,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8월 1일로 예고해 약 3주간의 협상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이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도 했으나, 브라질에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는 등 기대인플레이 상승 압력이 부각되었다. 또한 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원자재 가격 상방 우려 또한 금리 상방 요인이었다.

한편 국내 시장은 상호관세 부과보다 국내 통화정책 영향을 받아 강세 마감했다. 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으나,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은 4명으로 지난 통화정책회의의 수준이 유지되었다. 성명문 문구도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8월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테이블에 놓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상방 압력은 건설 투자 감소 등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언급하는 등 저성장 우려에 맞춰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영향에 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현재(%)	1W(bp)	1M(bp)	YTD(bp)		현재(%)	1W(bp)	1M(bp)	YTD(bp)
국고 2년	2.419	-2.8	0.9	-34.6	미국채 2년	3.885	0.5	-6.7	-35.7
국고 3년	2.447	-2.6	3.0	-14.8	미국채 3년	3.861	2.1	-5.6	-41.2
국고 5년	2.605	-2.0	2.3	-16.0	미국채 5년	3.973	3.7	-4.8	-40.9
국고 10년	2.830	-0.4	-0.5	-4.1	미국채 10년	4.409	6.4	-1.1	-16.0
국고 30년	2.715	-1.7	-3.6	-8.1	미국채 30년	4.949	8.8	3.2	16.8

	현재(%)	1W(bp)	1M(bp)	YTD(bp)		현재(%)	1W(bp)	1M(bp)	YTD(bp)
통안 91일	2.372	-0.3	-8.5	-59.0	여전채 AA+	2.794	-1.5	-6.9	-23.6
통안채 1년	2.281	-2.5	5.1	-41.3	여전채 AA-	2.927	-1.7	-7.6	-26.2
통안채 2년	2.400	-2.0	0.0	-35.2	회사채 AA+	2.852	-0.3	-4.6	-20.5
공사채AAA	2.628	-2.9	-8.0	-13.4	회사채 AA-	2.936	-0.3	-4.6	-19.5
은행채AAA	2.689	-1.2	-5.1	-10.6	회사채 A+	3.332	-0.2	-1.7	-10.3

*통안채 제외 3년물 기준, 국고 대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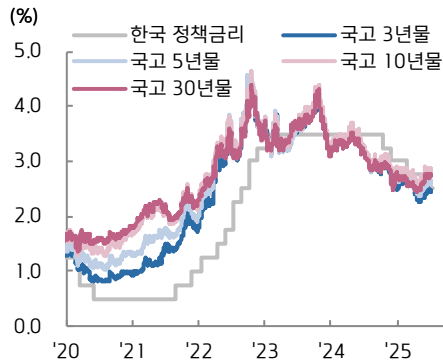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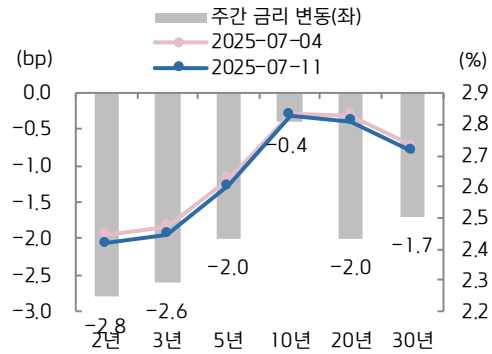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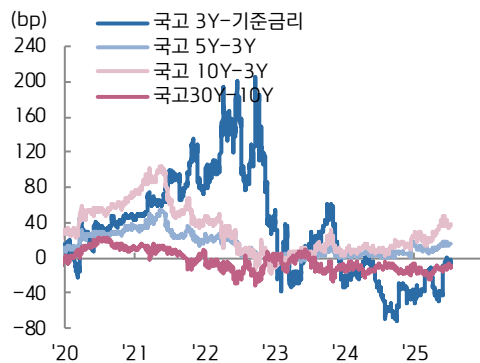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수익률 곡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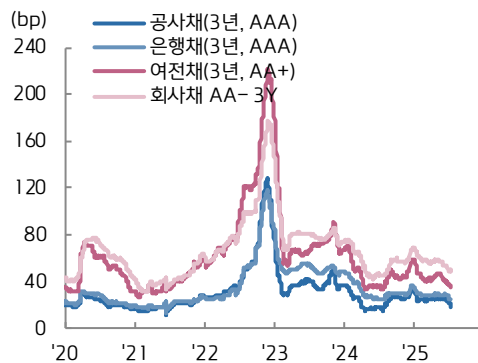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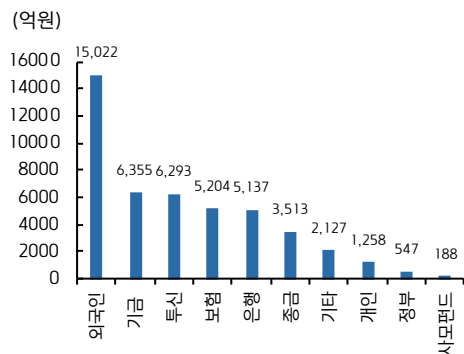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회사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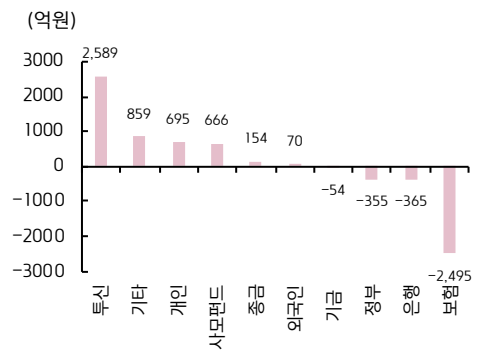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채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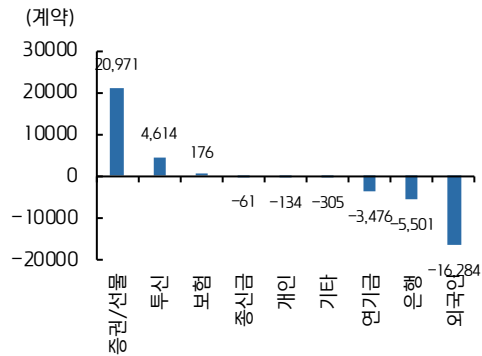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회사채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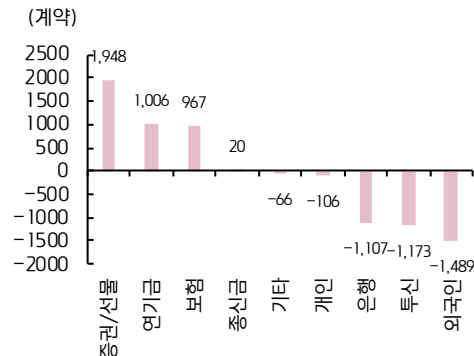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TB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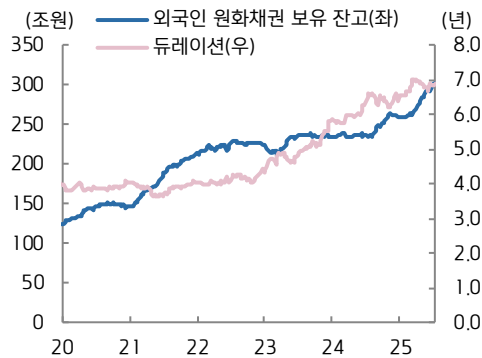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LKTB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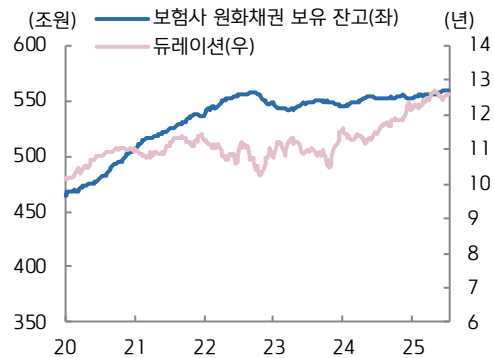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원화채권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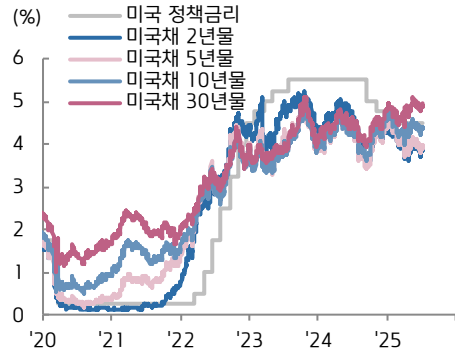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보험사 원화채권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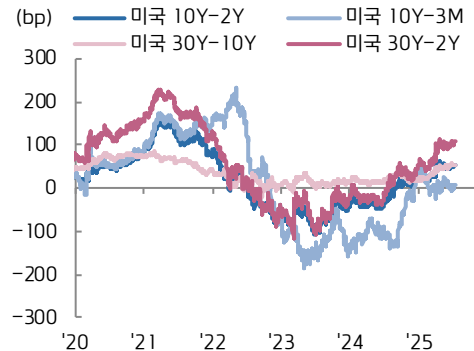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